

KOSDAQ | 소프트웨어와서비스

한국전자금융 (063570)

무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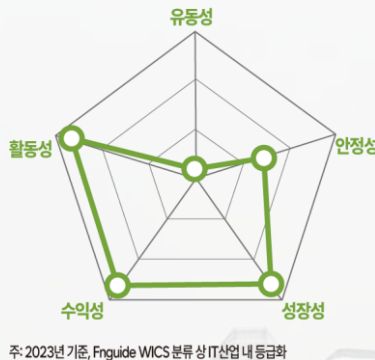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2000년에 한국신용정보 금융사업본부가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 ATM 관리, ATM VAN 운영, 주차 사업, 전기차 충전,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영위.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82.2%, 현금수송사업 15.1%, 영상보안솔루션사업 2.7%
- 투자포인트: 1) 주차 사업의 강자 2) 현금사업의 안정적 현금 유입 3) 성공적인 은행 물류 사업 진출
- 주차 사업 성장에 힘입어 2024년에는 매출액 4,004억 원(YoY 9.5%), 영업이익 334억 원(YoY 19.3%)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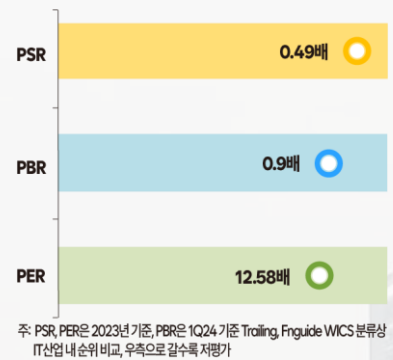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한국전자금융 (063570)

Analyst 김선호 shkim@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KOSDAQ

소프트웨어와서비스

무인 시스템 운영 관리 기업

2000년에 한국신용정보 금융사업본부가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 ATM 관리, ATM VAN 운영, 주차 사업, 전기차 충전,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영위.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82.2%, 현금수송사업 15.1%, 영상보안솔루션사업 2.7%.

2024년 주차 사업 성장이 실적 성장을 견인

누적으로 계약된 주차 사업지 수가 2020년 1,210개, 2021년 2,200개, 2022년 3,500개, 2023년 4,900개로 빠른 속도로 증가. 매출액도 빠르게 증가하며 2024년에는 주차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대비 39.1% 증가한 1,600억 원을 기록할 전망.

현주가는 2024년 추정실적대비 PBR 0.9배로 저평가

성숙사업인 현금사업(ATM 관리, ATM VAN 운영)에서 성장사업인 주차 산업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억원)	2,259	2,384	2,889	3,655	4,004
YoY(%)	-19.0	5.5	21.2	26.5	9.5
영업이익(억원)	142	143	189	280	334
OP 마진(%)	6.3	6.0	6.5	7.7	8.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5	93	86	143	170
EPS(원)	101	271	251	418	496
YoY(%)	296	168.0	-7.6	66.9	18.7
PER(배)	56.5	20.2	18.3	14.7	10.4
PSR(배)	0.9	0.8	0.5	0.6	0.4
EV/EBITDA(배)	4.6	4.5	3.7	4.3	3.6
PBR(배)	1.3	1.1	0.9	1.2	0.9
ROE(%)	2.2	5.8	5.0	8.0	9.0
배당수익률(%)	1.9	2.0	2.4	2.0	2.4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6/19)	5,180원
52주 최고가	7,520원
52주 최저가	5,180원
KOSDAQ (6/19)	861.17p
자본금	171억원
시가총액	1,769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3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억원
외국인지분율	2.96%
주요주주	NICE홀딩스 35.80%
	비지애프네트웍스 12.6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5	-15.1	-18.9
상대주가	-6.1	-15.4	-16.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EBITDA마진율',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무인 시스템 운영 관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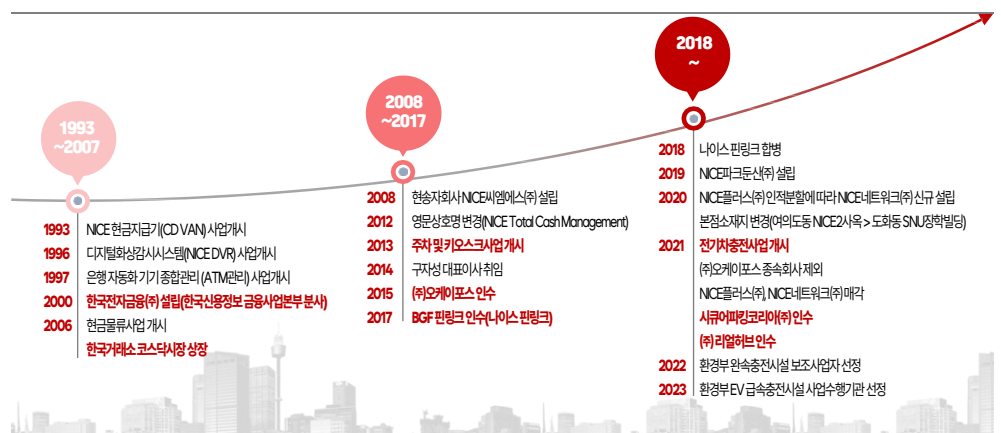
**ATM 관리, ATM VAN,
주차 사업, 전기차 충전,
키오스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무인시스템 운영관리 기업**

한국전자금융은 2000년에 한국신용정보 금융사업본부가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ATM 관리, ATM VAN 운영, 주차 사업, 전기차 충전,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NICE그룹의 금융 서비스 계열회사로, 1993년 ATM VAN 사업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1996년에는 국내 최초로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녹화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DVR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융권에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에는 ATM 관리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0년 한국신용정보 금융사업본부가 분사하여 동사가 설립되었으며, 현금사업에 기반하여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같은 해에 현금유통 종합 서비스인 현금물류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8년 현금 수송 전문 회사 NICE씨엠에스가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내 주요 금융기관, 대형 백화점·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주차 및 키오스크 사업을 개시했으며, 2015년에 M&A를 통해 국내 1위 POS솔루션 기술을 가진 오케이포스를 인수하였다. 2016년에는 골프 ERP 솔루션 업체 무노스를 인수하여 동사의 네트워크 사업부문과 합병하였다. 2017년에는 인프라 통합 및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CU 계열사였던 BGF핀링크(현재 나이스 핀링크)를 인수하여 CD VAN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작하였다. 2021년 3월에 주차 사업분야의 매출 확대를 위하여 시큐어파킹코리아를 인수하였고, 5월에는 VMS 기술을 보유한 리얼허브를 인수하여 기술 제휴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 납품 및 SI 시공 비즈니스에서 영상분석 기술 및 관리 서비스 등 솔루션 중심으로 영상 사업을 확장하였다. 같은 해, NICE플러스(舊 무노스)와 NICE네트워크(NICE플러스가 인적분할됨에 따라 신설된 회사)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며 결제장비 사업과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을 중단하였다. 종속회사로 분류되었던 오케이포스는 티페이에 흡수합병 되면서 지분율 30.23%를 갖는 관계기업이 되었다.

한국전자금융 주요 연혁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2023년 매출비중은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82.2%, 현금수송사업 15.1%,
영상보안솔루션사업 2.7%임

2023년 기준 매출비중은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82.2%, 현금수송사업 15.1%, 영상보안솔루션사업 2.7%이다.

현금 사업/모빌리티/무인화 솔루션

현금 사업은 ATM VAN 사업과 ATM 관리 사업으로 나뉘어진다. 국내에서 CD/ATM 기기를 통해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과 ATM VAN 사업자로 구분된다.

ATM 관리 사업이란 은행 영업점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점포, 점외 365코너 등에 대한 ATM 운영 관리 업무를 은행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 운영 관리 업무에는 ATM 장애처리, 현금 수송, 자금 정산, 보안 경비, 콜센터(모니터링), 환경 관리 등의 서비스가 있다. 주요 고객은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며 총 6천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당사는 최초로 ATM 관리 사업을 개시하였고,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TM VAN 사업자는 자체 CD/ATM 기기를 통해 제1,2 금융권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 국제공동망 서비스(EXK), 해외카드 서비스, 선불카드 충전 및 포인트 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편의점, 마트, 휴게소,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전국 2만여 대를 운영 중이다.

모빌리티 사업에는 주차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이 있다. 주차 사업은 주차원 인건비 부담 완화, 24시간 365일 가동에 따른 매출 증대 등의 니즈에 따라 기존 유인 주차장을 무인화하여 주차장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동사의 주차사업 전문 브랜드 나이스파크는 주차 관제 시스템 판매 및 운영, 주차장 개발과 매입 등 주차장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한다. 나이스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개발 및 매입, 2) 주차장 운영사업, 3) 주차장 위탁 관리, 4) 주차 관제 시스템 판매 및 렌탈이다. 나이스파크의 주 거래처로는 종로타워, SRT(수서, 동탄, 지제역), 용산 아이파크몰, 광명 이케아, 성균관대학교 등이 있다. 2017년 동사가 관리하는 주차사이트 수가 300개였으나, 2021년 2,200개, 2022년 3,500개, 2023년 4,900개, 2024년 1분기 5,190개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충전사업은 아파트, 오피스빌딩,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브랜드로는 동사가 2022년에 런칭한 나이스차저(Nice Charger)가 있으며, 동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아파트 등의 충전 수요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고객사가 주차면을 제공하면 동사가 무상으로 투자하여 설치 후 전기차 충전 수수료를 받는다.

무인화 솔루션 사업은 키오스크와 영상 사업으로 구성된다. 키오스크란 기존의 대면으로 운영하던 서비스를 비대면·무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무인 주문·결제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프랜차이즈나 푸드코트, 휴게소에 쓰이는 일반형과 백화점, 마트, 레저, 병원 등에서 이용되는 특수형으로 나뉜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인건비 대체를 통한 비용 절감, 빠른 업무 처리, 효과적인 거래 관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사는 SK, 현대, 코레일, LG전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경험이 있다.

본사 영상보안솔루션 사업은 금융기관, 아파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CCTV, DVR 등의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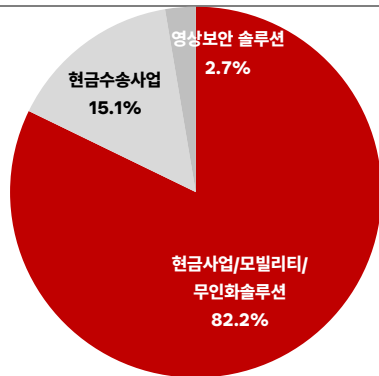
현금수송사업(NICE씨엠에스 98.6%)

현금수송사업은 현금 유통이 많은 모든 사업장의 현금 수납, 수송, 정산 등 현금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전문적인 호송 요원, 특수 장비, 특수 차량을 갖추고 현금 및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사의 현금수송사업은 NICE씨엠에스에서 담당하고 있다. NICE씨엠에스는 2008년 8월 현송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설립되었다.

영상보안솔루션(리얼허브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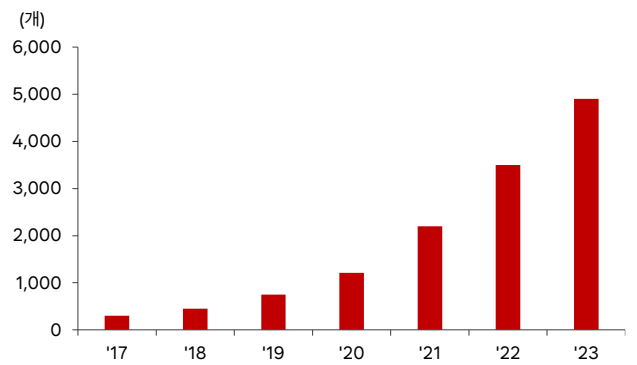
종속회사 리얼허브를 통해 컴퓨터 통신기기와 주변기기 제조 및 설치 업무, 영상보안솔루션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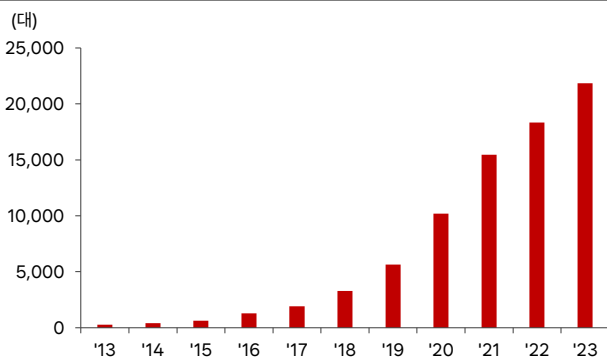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누적 계약 사업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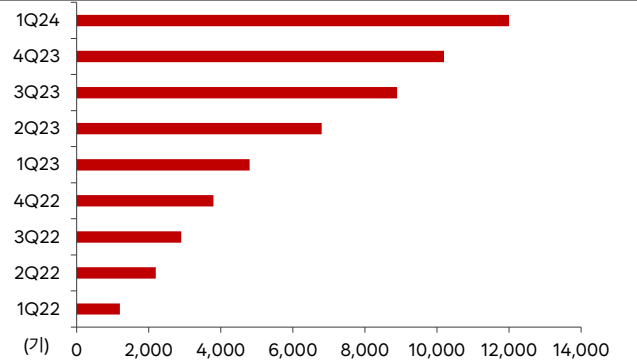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키오스크 누적 출하대수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충전 누적계약 기수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키오스크 주요 고객사

01) 대기업/공공기관	02) 프랜차이즈	03) 위탁/레저 시설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 및 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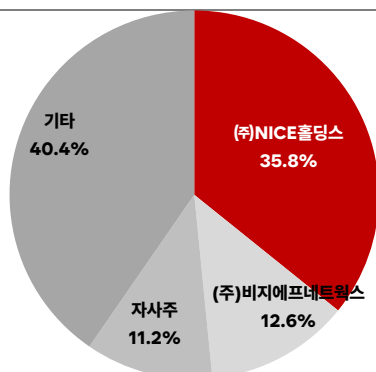
**최대주주는 NICE홀딩스로,
지분율은 35.8%**

최대 주주는 NICE홀딩스로, 지분율 35.8%(주식수 1,222만 3,920주)를 보유하고 있다. NICE홀딩스 이외에 5%이상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BGF네트웍스로, 지분율 12.6%이다. BGF네트웍스는 디지털 마케팅에 특화된 회사로, 디지털사이니지, 전자상품권, 기업 메세징, 현금영수증, 택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자기주식을 381만 7천주(지분율 11.2%)를 가지고 있다.

당사는 NICE씨엠에스(지분율 98.6%), NICE파크둔산(지분율 90.0%), 시큐어파킹코리아(지분율 100%), 리얼허브(지분율 75.4%) 총 4개의 비상장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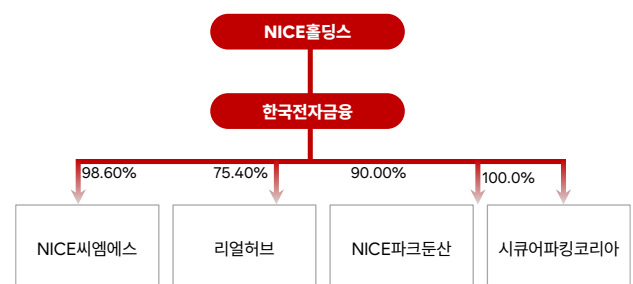
NICE씨엠에스는 2008년 8월 현송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업과 호송경비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NICE파크둔산은 2018년 12월 주차사업분야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부동산 관리, 주차장 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시큐어파킹코리아 또한, 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리얼허브는 영상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현황(1Q24)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배구조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주차 운영

주차장 사업 주요 비즈니스 모델

1) 주차장 운영사업

주차장은 부동산의 성격을 띤다. 주차장의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기도 하며,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임대료를 받기도 한다. 주차장 운영 사업이란 무료 또는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료화, 시스템화 하여 주차장을 수익화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인 주차장 운영계약은 임대차 형태를 띠고 있다. 운영 사업자에게는 주차 수익이 매출이 되며, 임차료 및 인건비, 시스템 투자비, 유지보수비 등이 비용이 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5년 단위이다. 다른 계약 형태로는 수익배분 방식도 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가를 주차 매출에서 공제하고 남은 매출 이익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와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서로 합의한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주차장 운영 사업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기존보다 차량의 유입량을 늘리거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비용이 대부분 고정비 성격을 띠고 있어 매출 변동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코로나19 때 주차장의 가동률이 낮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주차장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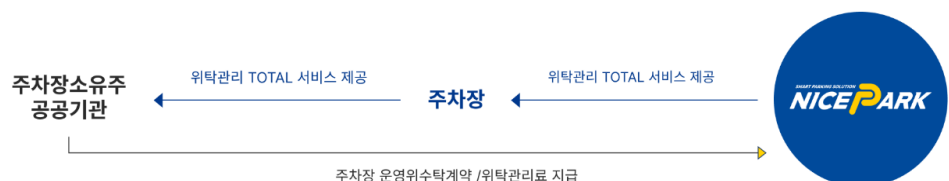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주차장 위탁관리

또 다른 수익모델로는 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맡고 수수료만 받기도 한다. 시스템을 직접 투자하여 투자비가 들어가고, 콜센터 운영, 긴급장애출동 등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주차장의 운영 실적과 관련 없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주차 수익이 매출로 인식되는 주차장 운영 사업 대비 매출 규모가 작다.

주차장 위탁관리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장의 주요 사업자**아마노의 아마노코리아****휴맥스의 휴맥스모빌리티****SK의 파킹클라우드****카카오모빌리티****한국전자금융의 나이스파크**

주차장 운영 사업자로는 아마노코리아, 휴맥스모빌리티, 파킹클라우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전자금융 등이 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 전문 기업 아마노의 한국 법인이다. 2023년에 매출액 1,965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하였다.

휴맥스모빌리티는 휴맥스가 지분을 44.8% 들고 있는 회사이다. 2019년에 VIG파트너스로부터 하이파킹을 인수하고, 2021년에 AJ네트웍스로부터 AJ파크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했다. 2023년 매출액 2,279억 원, 영업이익 -401억 원을 기록하였다.

파킹클라우드는 SK E&S가 44.5%, 엔에이치엔이 24.58%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이다. 2023년 매출액 840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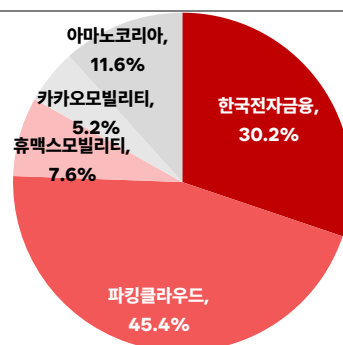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 케이엠파크(舊 GS파크24), RS솔루션즈 3개의 자회사를 통해 주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 사업은 2021년에 인수한 케이엠파크가 담당하고 있다. 케이엠파크의 2023년 매출액은 798억 원, 영업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하였다.

한국전자금융은 나이스파크라는 브랜드를 갖고 2014년에 시장에 진입하였다. 1999년에 설립된 하이파킹, 2006년에 설립된 GS파크24, 2007년에 설립된 AJ파크, 2009년에 설립된 파킹클라우드 대비 후발주자이다. CD/ATM 기기를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2023년 주차장 매출액은 1,150억 원이다.

주차 산업은 성장기

2023년에는 주차장 운영을 직접 했던 대형복합시설에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입찰이 다수 있었다. 강남 파이낸스센터 1,312면, 가든파이프 라이프 3,757면, 가든파이프 워크스 852면, 용산 아이파크몰 2,483면, 성수 갤러리아 포레 1,504면, 강변 테크노마트 2,184면, 강남 글라스타워 305면 등이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그동안 대형복합시설들은 고객 서비스 등의 이유로 주차장 외부 위탁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어 환경개선과 시스템 교체가 필요해지고, 수익 개선을 위해 외부 위탁에 나섰다. 2024년에도 외부 위탁에 나서지 않았던 대형 복합 시설들의 물량이 입찰에 나오며 주차 운영 시장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수는 1.7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전자금융이 5,190개(2024년 1분기 기준), 파킹클라우드 7,802개(홈페이지 기준), 휴맥스모빌리티 1,300개(하이파킹 홈페이지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900개(케이엠파크 홈페이지 기준), 아마노코리아 2,000여 개(2023년 7월 기사 기준)를 합산한 값이다. 회사들이 공개한 운영 사업지 수에는 장비 현장(장비 사용에 대한 이용료만 수취)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점이 다른 부분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주차장 운영업체 점유율 추정치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TM 사업

CD/ATM기기는 금융 인프라이다.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ATM VAN 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설치된 위치를 기준으로 점포 내 설치와 점포 외 설치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점포 내 설치된 기기 중 무인 점포, 점두형(은행의 업무 종료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점포 외에 설치된 기기를 ATM 관리 사업자를 통해 관리한다. ATM VAN 사업자는 점포 외에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021년 기준 CD/ATM 설치 대수 구성

(단위: 대)

	점포 내	점포 외	합산
금융기관이 설치한 CD/ATM	51,396	15,780	67,176
ATM VAN 설치한 CD/ATM	0	50,106	50,106
합산	51,396	65,886	117,282

자료: 한국은행,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TM 관리

월 일정금액을 수취

ATM 관리 사업은 은행의 자산인 CD/ATM 기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현금의 투입, 정산 등의 역할과 긴급 출동, AS, 업그레이드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한다. 이를 통해 월 일정 금액을 수취한다.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가 비용으로 지출된다.

ATM 관리

주요 사업자로는 한국전자금융과

효성

ATM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로는 한국전자금융, 효성TNS, 에스원, 한국금융안전 등이 있다.

시장 점유율은 한국전자금융이 53%, 효성이 23%이다.

효성TNS의 주요주주는 54.01%를 보유한 효성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크고, CD/ATM 기기 제조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 1.1조 원, 영업이익 227억 원을 기록하였다.

한국금융안전은 주요주주는 은행 계열로 합산하여 60.93%(우리은행 15.0%, 국민은행 14.96%, 신한은행 14.91%, 중소기업은행 14.67%, 한국시티은행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금 수수 사업도 같이 영위하며, 2023년에 매출액 486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했다.

ATM 관리

시장 감소세 일단락

ATM 관리는 금융기관의 점포 외 설치된 기기의 수와 점포 내로 분류된 무인 점포, 점두형 점포의 수가 중요하다.

점포 외 기기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금융기관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외 기기대수를 줄여왔다. 2021년에 금융기관이 설치한 점포 외 기기대수 1.6만 대는 2014년 2만 대 대비 21.5% 낮다.

점포 내 기기대수는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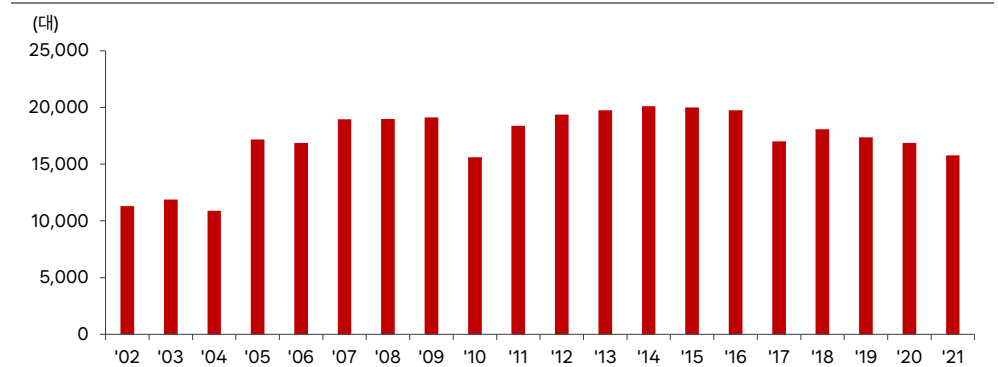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수를 줄이고 있었다. 2023년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국내 지점 수는 5,755개로 2020년 지점 수 6,411개 대비 656개 축소되었다.

2023년 4월에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폐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를 폐쇄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기존과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 소규모 점포, 이동점포, 창구 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야 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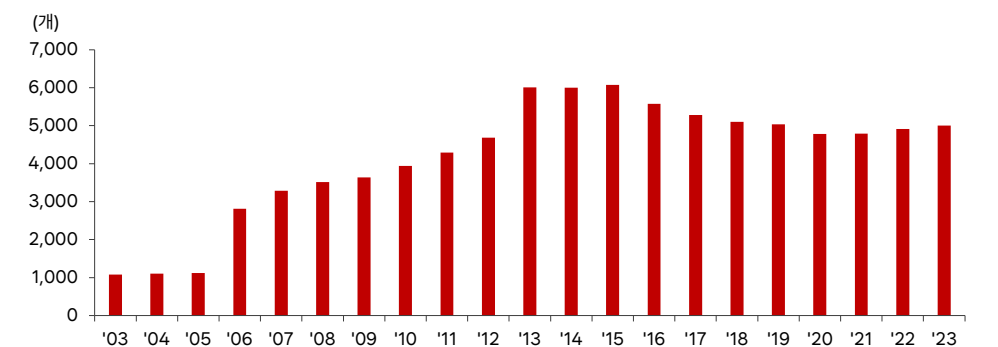
해당 방침 발표 이후, 은행들은 일부 점포에 한하여 기존 점포를 폐쇄하는 대신 무인 점포로 대체할 계획이다. 2023년 은행의 무인 점포는 5,007개로 2020년 4,786개 대비 221개 증가하였다. 유인 점포가 무인 점포로 대체되면서 ATM 관리 업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점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이 설치한 점포 외 CD/ATM 운영대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중, 지방, 특수 은행 무인점포 수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TM VAN

이용수수료가 매출

ATM VAN 사업자가 설치한 기기는 거래마다 발생하는 이용수수료가 매출이 된다. 비용에서는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 외에 추가적으로 직접 투자한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기 배치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한다.

ATM VAN

주요 사업자 한국전자금융, 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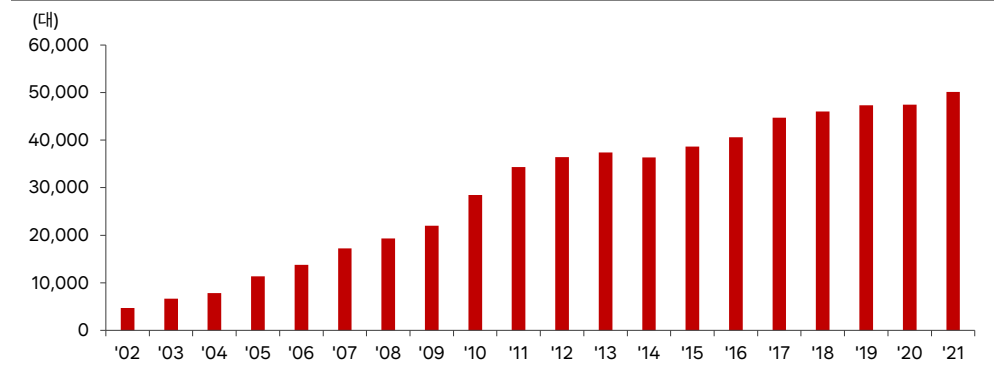
ATM VAN 사업자에는 한국전자금융, 효성TNS, 코리아세븐 등이 있다. 시장점유율은 한국전자금융이 42%, 효성TNS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자금융은 편의점 CU, 효성TNS는 편의점 GS25와 주요 파트너이다. 코리아세븐은 롯데지주가 92.33%를 들고 있는 편의점 회사이다. 2023년 금융서비스부문 매출액은 326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을 기록하였다.

ATM VAN**거래건수가 감소하며 시장 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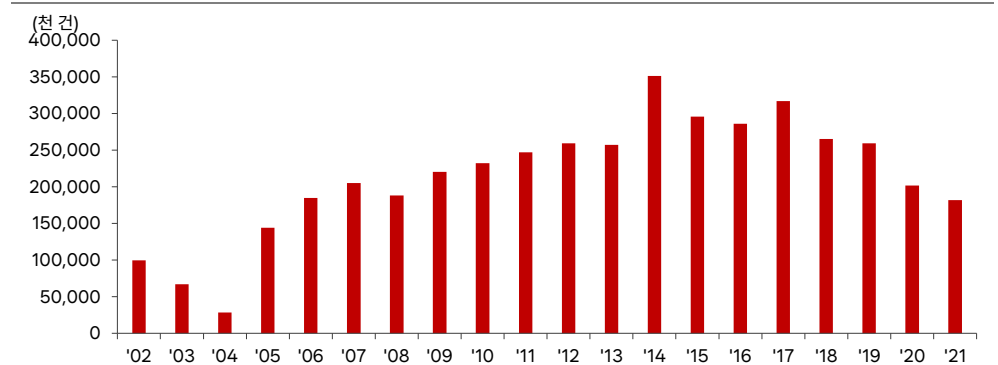
현금 활용이 줄어들면서 ATM VAN 사업의 실적은 감소세에 있다.

ATM VAN 사업은 설치된 CD/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거래 건수가 중요하다. 기기를 통해 예금 인출, 현금 서비스, 계좌 이체 등 금융 서비스와 전자화폐 충전 등을 제공하며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기기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거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전자금융이 제시하는 시장 자료에 따르면 ATM VAN 사업자가 운영하는 CD/ATM 기기의 수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ATM VAN 사업자가 운영하는 CD/ATM 기기 이용실적은 2021년 1.8억 건으로 2014년 3.5억 건에서 크게 줄었다.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용 횟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설치 대수가 증가하더라도 거래 건수가 감소하면 실적은 감소하게 된다. 기기가 늘어날수록 감가상각비, 임대료,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ATM VAN 사업자는 이용객이 많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기기를 재배치 하면서 설치 대수를 줄이고 있다. 현재 설치된 기기의 70%가 편의점에 위치해 있다.

ATM VAN 사업자의 점포 외 ATM/CD 운영대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TM VAN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 외 기기 이용실적

자료: 한국은행,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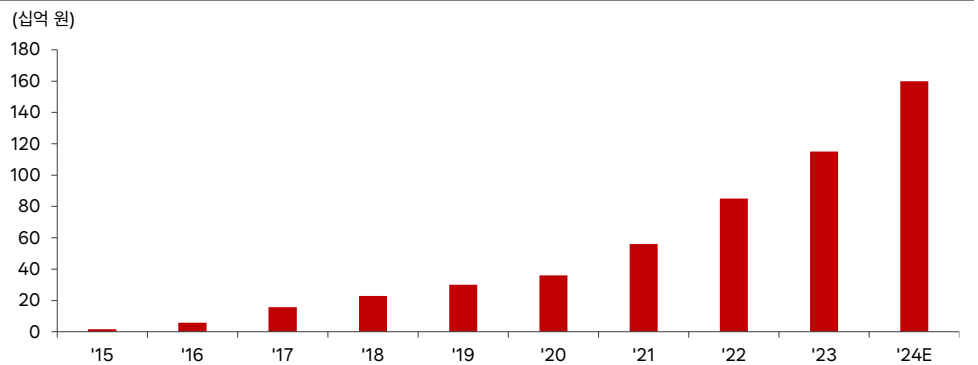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주차 사업의 강자

한국전자금융이 주차사업에 진출한 지 10년이 되었다. 과거 한국전자금융은 ATM 관리 사업, ATM VAN 사업으로 주로 알려진 회사였다. 2023년에는 주차 사업의 매출액이 1,150억 원으로 전사 매출액의 31.5%를 차지하여 단일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4년 주차 사업 예상 매출액은 1,600억 원으로 전사 매출의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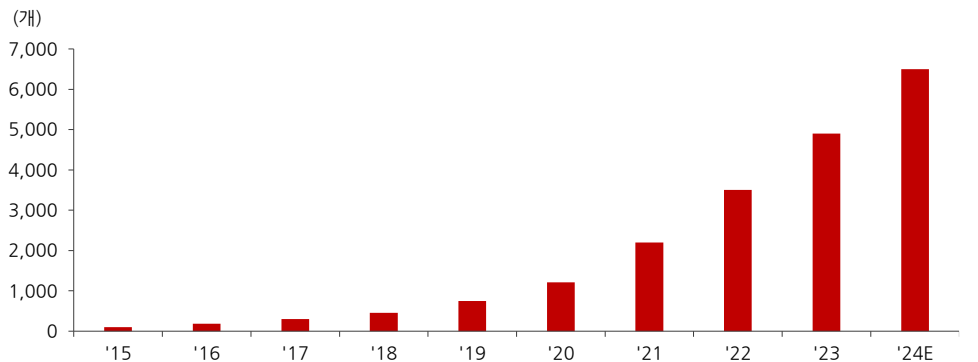
동사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5,190여 개의 주차장과 계약을 맺었다. 2020년 1,210개, 2021년 2,200개, 2022년 3,500개, 2023년 4,900개로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누적 계약 수를 6,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 사업 매출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누적 계약 사업지 수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후발주자임에도 선두업체

한국전자금융이 운영하는 주차장 5,190개는 기업이 운영하는 전체 주차장의 수(약 1.7만 개)에서 약 30%를 차지한다. 업체마다 기준이 다른 수치를 공개하고 있는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 중소기업인 동사가 대기업들이 참여한 주차 운영 사업에서 상위 사업자가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전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주차 사업 확장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현금 사업이 있음

한국전자금융이 성공적으로 주차 산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사업(ATM 관리, ATM VAN) 덕분이었다. 두 가지 요소가 크게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첫째로 인프라 효과를 꼽을 수 있다. 기존 사업을 위해 구축한 지방 영업망 및 A/S 지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주차 사업 초기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시작하였다. 동사는 현금사업을 위해 전국에 28개의 A/S 지사를 갖고 있다. 동사는 주차 사업의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이 늦었지만 시작부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시작하였다. 주차장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장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상황에 맞춰 사업주에게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이 필요하다. 동사는 기존에 구축된 마케팅 인력을 주차 영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빠르게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24시간 콜 센터는 무인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핵심 사업부이다. 고객 민원대응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해결과 관련이 있다. 주차장의 고객은 대부분 출구에서 민원을 해결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이 출구를 막고 있는 동안 뒤 따라오는 차량은 불편을 겪게 된다. 차량의 입출입이 늦어진다는 것은 주차장의 가동률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매출을 감소시킨다. 동사는 시작부터 콜 센터를 운영하여 주차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유지보수 인프라도 필수적이다. 기기의 고장은 매출의 감소이다. 사전 점검을 통해 고장을 예방하고 고장이 났을 때 빠르게 처리하여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동사는 현장 비상 출동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장비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고 있다.

둘째로 ATM 관리사업, ATM VAN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주차산업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무인 주차장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약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는 선 집행되는 반면 운영 수익은 5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 매년 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무인 주차장 설치를 위해 약 200억 원이 필요하다. 동사가 증자나 차입금의 큰 증가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ATM 관리사업, ATM VAN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자금융 인프라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사업을 참여한 업체들의 수는 감소 중

기업들이 주차 사업을 영위한지는 20년이 넘었으나, 본격적인 성장기는 무인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한 201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성장기였던 과거 10년 동안 시장은 확대되었지만, 참여자들은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호주 주차 기업 월슨파킹이 주차 사업을 매각하고 철수하였다. AJ네트웍스는 2021년 AJ파크를 휴맥스모빌리티에 매각하면서 주차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GS그룹은 2021년에 GS파크24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매각하면서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에스원은 2023년 말에 운영하던 5개의 사업장을 하이파킹에 매각하였다. 사업장을 매각한 주요 이유에는 5개 사업장 중 1개에서 발생하는 적자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부적으로 주차장 운영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구축된 영업망과 한국전자금융의 전략이 차별화 요소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SK E&S가 대주주인 파킹클라우드, 휴맥스가 대주주인 휴맥스모빌리티, 카카오가 대주주인 카카오모빌리티, 아마노코리아, 한국전자금융 정도가 남아 있다. 여전히 업체의 수가 많고,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자도 존재하여 산업 내 추가적인 재편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과점화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인데 한국전자금융은 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유는 영업망이다. 보통 주차장 운영 업계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혼자 주차장 운영 제안을 하고 수주를 하기까지 최소 2~3년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최근 2년 동안 주차장 운영 업체에서 가장 많이 신규 주차장을 수주한 업체는 한국전자금융이다. 현재 영업망이 가장 잘 구축된 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자금 여력이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한국전자금융의 자금여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은 지분을 통해 주차 회사를 들고 있는 반면, 한국전자금융은 주차 사업부로 분류되어 있다. 증자를 위해서 주주 간 의견을 조율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원 재배치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더욱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었던 ATM 관리, ATM VAN 사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주차장 사업을 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현금사업의 안정적 현금 유입

ATM 관리, ATM VAN 1위

한국전자금융은 1997년 국내 최초로 ATM 관리사업을 도입하였다. 동사는 은행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점포, 점외 365 코너에 위치한 ATM에 대한 장애처리, 현금수송, 자금정산, 모니터링, 보안경비, 환경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전국 28개 지사와 14개의 자금센터 및 500여대 차량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6,000여대를 관리하여 업계 점유율 53%의 1위 사업자이다.

동사는 1993년 ATM VAN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사의 자산인 CD/ATM 기기를 편의점과 마트,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서 운영하거나 금융기관의 브랜드를 부착한 자동화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총 20,000여대를 운영하여 업계 점유율 42%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현금사업부의 영업이익 비중이 여전히 큼

은행이 점포를 축소하고 소비자들의 이용횟수가 감소하며 두 개의 ATM 관련 사업부의 매출액은 감소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출의 31.5%를 차지하는 주차 사업은 확장 공간에 있어 이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의 16.5%를 차지하는 현금물류의 영업이익률은 2.0%로 전사 평균 영업이익률 7.7%보다 낮다.

캐시카우는 포트폴리오 변경 자원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는 박한 편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전자금융은 ATM 관리, ATM VAN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성장 산업인 주차장 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회사의 매출 포트폴리오 변화를 위해 ATM 관리, ATM VAN 사업의 현금흐름은 중요하다.

안정적 현금흐름이 지속될 것

현금 사업(ATM 관리, ATM VAN)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금융 인프라로서 ATM의 역할 때문이다. 온라인 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ATM에 의존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한 ATM은 존재해야 한다. 2023년 4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도 ATM을 인프라로 정의하는 정부의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둘째, 편의점 채널의 확장이다. 동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CU의 점포수는 2023년 17,762개로 5년 동안 연평균 919개가 증가하였다. 편의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설치한 ATM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편의점에 있는 ATM 역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이 성숙기에 있기 때문이다. 성숙기에 진입한 산업은 성장이 없지만 신규 진입자도 없다. ATM 관리, ATM VAN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한국전자금융이 인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 은행에게도 리스크이다. ATM 관리 시장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2023년에 용역료 인상이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성공적인 은행권 물류 시장 진출

은행권 물류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

나이스씨엠에스(지분율 98.64%)는 한국전자금융의 종속회사로 2008년 8월 현송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 CD/ATM·정산기·키오스크 등 자동화 기기 관리, 중요증서 및 귀중품의 호송경비,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1년 동사는 매출액 373억 원을 기록하였다. 매출액 중 286억원이 지배기업인 한국전자금융에게 발생하여 내부매출액의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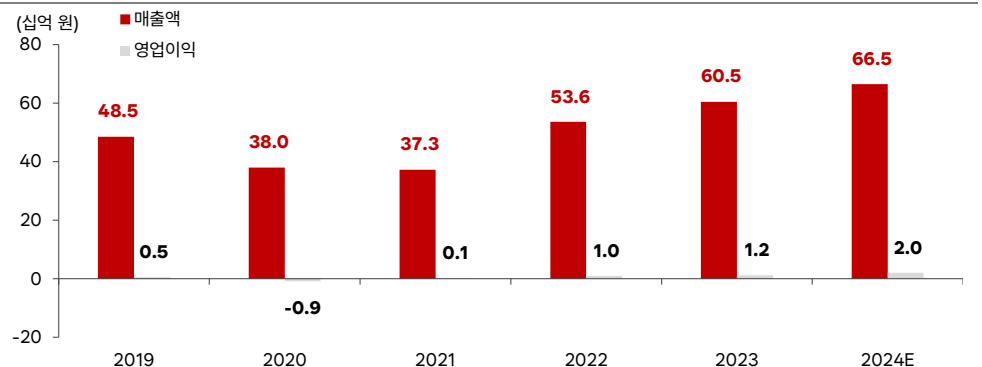
동사는 2022년 은행권 물류 시장에 진출하였다. 은행권 물류 시장(자금현수송+통합물류)은 은행 본점에서 지점 간, 지점 상호간 원화·외화 등을 운송하는 것을 일컫는다. 2021년까지 은행권 물류 시장은 2개의 현송 업체가 과점체제로 운영되었다. 1위 업체는 한국금융안전으로 2021년 기준으로 61%를 점유하고 있었다. 한국금융안전은 1990년에 은행 간 현금 수송이나 비밀문서 송수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로 은행권 지분율이 60.93%(우리은행 15.00%, 국민은행 14.96%, 신한은행 14.91%, 중소기업은행 14.67%, 한국시티은행 1.39%)이 된다. 은행권은 한국금융안전의 노조파업/노사분쟁 등의 이슈로 은행업무 수행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현송 업체를 다각화하기 시작하였다.

나이스씨엠에스는 현송업무만 수행하는 경쟁사와는 달리 ATM 사업의 안정된 물량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

2021년 5월 NH농협은행 통합물류업무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국민은행 물류업무, 기업은행 전국물류업무, 2023년에는 신한은행 물류업무를 시작하였다. 금융권 물류(자금현수송+통합물류) 시장에서 나이스씨엠에스의 점유율은 2021년 3% 수준에서 2023년 33%까지 상승하여 1위 업체가 되었다. 2024년 1분기에는 점유율이 38%까지 상승하였으며, 50%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실적은 매출액 373억 원에 영업이익은 1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매출액 536억 원에 영업이익 10억 원이었고 한국전자금융 향 매출액은 307억 원이었다. 2023년에는 매출액 605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전자금융 향 매출액은 311억 원을 기록하였다.

나이스씨엠에스 매출액 및 영업이익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3년 실적 분석

주차 매출이 성장을 견인

2023년 매출액은 3,655억 원으로 전년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8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2% 증가하였다.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매출액은 3,28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6% 증가하였다. 누적으로 계약된 주차장 수가 4,900개로 전년대비 1,400개 증가하면서, 주차장 매출액이 1,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35.3% 성장하였다. ATM 관리 사업에서 용역료 인상으로 현금사업(ATM 관리, ATM VAN)의 매출액은 2022년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으로 계약된 전기차 충전기 수는 10,200개로 전년 대비 6,400개 증가하였다.

현금수송 사업부(NICE씨엠스 98.6%)

매출액은 605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다. 2023년 6월부터 신한은행 물류업무가 개시된 영향이다.

영상보안 솔루션(리얼허브 75.4%)

매출액은 1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다. 솔루션 판매가 소폭 부진하였다.

영업이익률이 77%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2%p 높아졌다.

2024년 1분기 실적 분석

상품판매가 취소되어 매출 역성장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62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감소하였다. 이는 2023년 4분기에 발생했던 영상사업 상품 매출 일부가 거래처 사정으로 매출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매출이 취소된 금액 173억을 제외한 매출액은 79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다.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매출액은 53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하였다. 매출이 취소된 금액 173억 원을 제외하면 2.2% 매출이 증가하였다. 주차 누적 계약 사이트 수는 5,190개로 2023년 말 대비 290개가 증가하였다. 전기차 누적 계약기수는 12,000개로 2023년 말 대비 1,800개가 확대되었다.

현금수송 사업부(NICE씨엠스 98.6%)

매출액은 15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하였다. 2023년 1분기에는 신한은행 물류업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영상보안 솔루션(리얼허브 75.4%)

매출액은 2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하였다. VMS(Video Management System) 매출이 양호하였다.

영업이익률은 6.9%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0.4%p 높아졌다.

분기 실적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1Q23	2Q23	3Q23	4Q23	1Q24
매출액	77.6	89.3	94.1	104.6	62.5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69.3	80.6	85.8	92.7	53.5
현금물류	14.8	15.1	15.3	15.3	15.5
영상보안 솔루션 등	1.9	2.0	1.5	5.2	2.0
영업이익	5.0	7.4	6.5	9.1	4.3
영업이익률	6.5%	8.3%	6.9%	8.7%	6.9%
누적 계약 사업지 수(개)					
주차장	3,800	4,153	4,510	4,900	5,190
전기차 충전기	4,800	6,800	8,900	10,200	12,000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연간 실적 전망

주차 사업부가 2024년 매출
성장을 견인

2024년 매출액은 4,004억 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34억 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한 8.3%로 추정한다. 주차 사업부가 매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매출액은 3,479억 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차 사업부 매출액이 1,6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9.1%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과 2023년에 대형 오피스 빌딩에 대한 다수의 물량을 수주한 효과로 매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수송 사업부(NICE씨엠스 98.6%)

매출액은 6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점유율 확대가 38%까지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영상보안 솔루션(리얼허브 75.4%)

매출액은 109억 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다. 영상보안솔루션 사업부와 종속회사 리얼허브의 통합 효과가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이 8.3%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0.6%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비용이 고정비 구조로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원)

	2021	2022	2023	2024E
매출액	238	289	366	400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225	259	328	348
무인주차	56	85	115	160
현금물류	37	54	60	67
영상보안 솔루션 등	5	11	11	11
매출성장률	5.5%	21.2%	26.5%	9.5%
현금사업/모빌리티/무인화솔루션	2.3%	15.2%	26.6%	6.0%
무인주차	55.6%	51.8%	35.3%	39.1%
현금물류	-1.9%	43.8%	12.8%	10.0%
영상보안 솔루션 등		138.1%	-2.1%	3.2%
영업이익	14	19	28	33
영업이익률	6.0%	6.5%	7.7%	8.3%

자료: 한국전자금융,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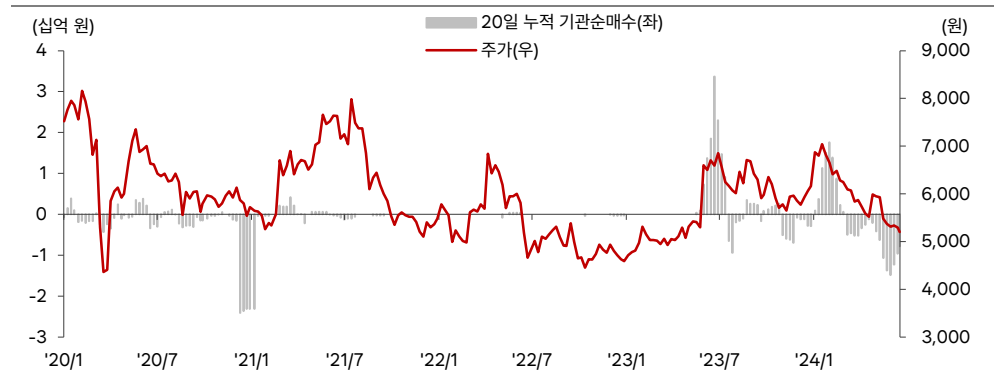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이후 기관투자자 매매와 주가 상관관계 높음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실망으로 주가가 움직였음

한국전자금융 주가는 2023년 34.2% 상승하여 동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 27.6%를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에는 연초대비 14.1% 하락하여 동기간 코스닥지수 하락률 0.5%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매매가 많지 않았다. 한국전자금융은 시가총액이 적은 특성상 기관투자자가 꾸준히 매매를 하는 종목은 아니었으나, 2023년 6월부터는 기관의 거래량이 늘어났다. 2023년 6월과 2024년 1월 기관 매수가 크게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컸고, 최근에는 기관 매도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세에 있다. 2023년에는 동사를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저조하고, 한국전자금융 또한 업황을 반영하여 전기차 충전기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이 실망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 순매수와 한국전자금융 주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사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주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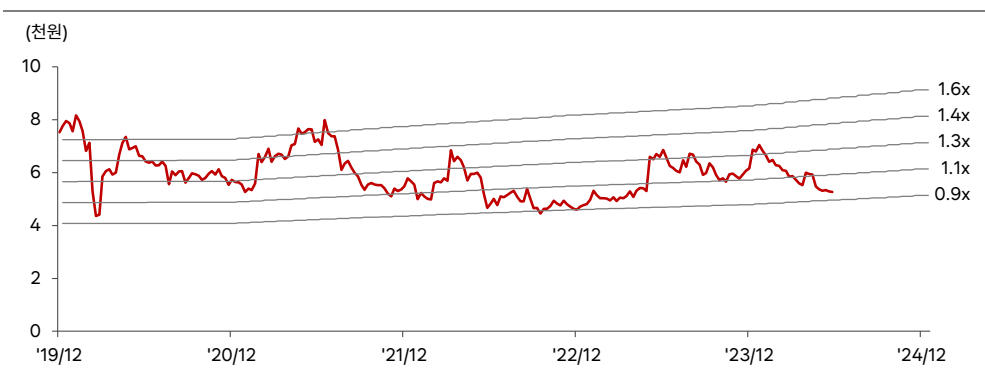
주차 사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주가

현재 한국전자금융의 PBR은 0.9배이다. 2020년 이후 PBRBand 0.9배~1.6배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를 감안하면 주가는 밸류에이션 Band 하단에 위치해 있다.

2023년 매출액은 3,655억 원, 영업이익은 280억 원을 기록하여 2020년 매출액 2,259억 원, 142억 원 대비 매출액은 61.8%, 영업이익은 97.4% 증가하였다. 주차사업 매출액이 2023년 1,150억 원으로 2020년 매출액 360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주가는 주차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주차 사업을 통해 전사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현재 수준의 PBR을 벗어나는 데 무리 없어 보인다.

한국전자금융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주차장 시장 경쟁 심화

5년 재계약 주기 도래

주차장 운영 사업자와 주차장 소유주의 계약은 보통 5년 단위이다. 한국전자금융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중인 주차 사업장을 확장해왔다. 2024년을 맞아 재계약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재계약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째, 재계약이 불발되고 다른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뺏길 수 있다. 둘째, 재계약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 5년의 기간동안 운영을 잘 해왔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재계약 조건에서 정량적인 부분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원활하게 재계약을 하는 사업자가 많다면 동사의 주차 사업은 순항하게 될 것이다.

확인해야 할 랜드마크 빌딩 수익성

한국전자금융은 사업 초기 전국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2023년에는 용산 아이파크 몰, 종로 콘코디언 빌딩, 여의도 브라이언트 등 수도권의 랜드마크 빌딩의 주차장을 수주하였다. 서울 오피스 빌딩의 주차장은 레퍼런스 측면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며 매출액도 커 매력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경쟁 입찰 구도로 인해 임대료가 비싸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개별적으로 주차장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아 수익성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다. 2023년에 수주한 주차장의 매출이 반영되는 2024년 전사 영업이익률을 지켜보며 마진을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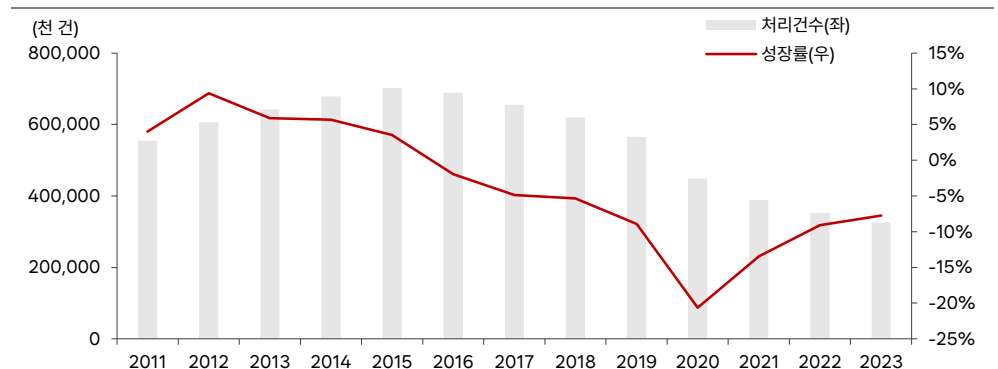
2 ATM VAN 사용 실적 감소 속도

지켜봐야 할 ATM 사용 실적 감소

현금자동인출기를 활용한 거래건수는 2016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16년~2019년 평균 감소율 5.3%(산술평균)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대외 활동이 감소하자 거래건수는 2020년에 20.6%, 2021년에 13.4% 급격히 하락하였다. 2022년, 2023년 하락폭이 줄어들었지만 2년 동안 평균 감소율은 8.4%(산술평균)으로 2016년~2019년 대비로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의 활성화와 현금 사용의 감소를 감안하면 현금자동인출기를 활용한 거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한국전자금융 실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금자동인출기 처리건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2,259	2,384	2,889	3,655	4,004
증가율(%)	-19.0	5.5	21.2	26.5	9.5
매출원가	217	270	283	658	721
매출원가율(%)	9.6	11.3	9.8	18.0	18.0
매출총이익	2,042	2,113	2,606	2,997	3,283
매출이익률(%)	90.4	88.7	90.2	82.0	82.0
판매관리비	1,900	1,970	2,417	2,717	2,949
판매비율(%)	84.1	82.6	83.7	74.3	73.7
EBITDA	654	713	798	888	942
EBITDA 이익률(%)	29.0	29.9	27.6	24.3	23.5
증가율(%)	6.0	9.0	11.9	11.3	6.0
영업이익	142	143	189	280	334
영업이익률(%)	6.3	6.0	6.5	7.7	8.3
증가율(%)	-8.9	0.7	32.2	48.2	19.2
영업외손익	-68	-47	-64	-117	-119
금융수익	4	15	45	37	37
금융비용	74	90	113	153	155
기타영업외손익	2	29	5	-1	-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5	-0	-10	-3	-3
세전계속사업이익	79	96	115	160	212
증가율(%)	51.5	83.9	20.0	38.8	32.4
법인세비용	32	6	29	16	40
계속사업이익	47	93	87	144	171
중단사업이익	-27	-0	0	0	0
당기순이익	20	90	87	144	171
당기순이익률(%)	0.9	3.8	3.0	4.0	4.3
증가율(%)	109.0	346.1	-4.2	66.7	18.7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35	93	86	143	170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27	663	700	571	735
당기순이익	20	90	87	144	171
유형자산 상각비	466	541	587	589	589
무형자산 상각비	47	30	22	20	19
외환손익	1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81	-35	-96	-259	-16
기타	74	37	100	77	-2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04	-350	-357	-535	-60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69	-19	44	44	-20
유형자산의 감소	17	2	6	1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53	-306	-372	-568	-600
기타	-37	-27	-35	-23	1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3	-488	-570	-241	-14
차입금의 증가(감소)	396	-209	-254	88	24
사채의증가(감소)	-25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3	-33	-33	-33	-38
기타	-176	-246	-283	-296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5
현금의증가(감소)	-41	-175	-227	-205	121
기초현금	1,730	1,689	1,514	1,287	1,083
기말현금	1,689	1,514	1,287	1,083	1,204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유동자산	2,108	1,895	1,908	1,797	1,985
현금성자산	1,689	1,514	1,287	1,083	1,204
단기투자자산	76	50	62	65	71
매출채권	248	258	339	571	626
재고자산	39	12	15	31	34
기타유동자산	56	62	206	46	51
비유동자산	2,672	2,992	3,071	3,404	3,419
유형자산	1,404	1,357	1,404	1,641	1,652
무형자산	316	226	219	218	198
투자자산	330	528	482	461	484
기타비유동자산	622	881	966	1,084	1,085
자산총계	4,779	4,888	4,979	5,200	5,404
유동부채	2,258	2,264	2,441	2,570	2,636
단기차입금	1,535	1,526	1,407	1,615	1,615
매입채무	42	43	57	87	96
기타유동부채	681	695	977	868	925
비유동부채	946	959	780	792	79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510	345	135	60	60
기타비유동부채	436	614	645	732	735
부채총계	3,204	3,222	3,221	3,361	3,431
자배주주지분	1,549	1,651	1,743	1,816	1,947
자본금	171	171	171	171	171
자본잉여금	759	763	763	762	762
자본조정 등	-402	-401	-400	-399	-39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1	-6	-6	-6
이익잉여금	1,023	1,120	1,216	1,288	1,420
자본총계	1,576	1,665	1,758	1,839	1,973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F
P/E(배)	56.5	20.2	18.3	14.7	10.4
P/B(배)	1.3	1.1	0.9	1.2	0.9
P/S(배)	0.9	0.8	0.5	0.6	0.4
EV/EBITDA(배)	4.6	4.5	3.7	4.3	3.6
배당수익률(%)	1.9	2.0	2.4	2.0	2.4
EPS(원)	101	271	251	418	496
BPS(원)	4,535	4,836	5,104	5,318	5,703
SPS(원)	6,615	6,980	8,461	10,704	11,725
DPS(원)	110	110	110	125	125
수익성(%)					
ROE	2.2	5.8	5.0	8.0	9.0
ROA	0.4	1.9	1.8	2.8	3.2
ROIC	6.4	9.1	10.8	13.0	13.0
안정성(%)					
유동비율	93.4	83.7	78.2	69.9	75.3
부채비율	203.3	193.5	183.3	182.8	173.9
순차입금비율	67.1	79.9	77.3	94.1	82.5
이자보상배율	1.8	1.6	1.8	1.8	2.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6	0.7	0.8
매출채권회전율	8.8	9.4	9.7	8.0	6.7
재고자산회전율	70.2	94.6	217.1	160.1	123.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한국전자금융	X	X	X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